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6. 11.(금) 10: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조찬우 사무관 sogood5925@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김금비 사무관 keumb@korea.kr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044-215-4510)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김이한 (044-215-7530)		김애리 사무관 arkim0814@korea.kr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영민 (044-215-8530)		서지현 사무관 jjhopes@korea.kr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장 조영욱 (044-215-8550)		김문수 사무관 sin20219@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김혜련 사무관 hrkim07@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장 김우철 (044-960-6170)		최성영 사무관 bewithchoi@korea.kr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손진철 사무관 sonkcc@korea.kr

제목 :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1(금)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청년 및 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고용부·여가부, 제목만 공개)
- ②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준비 및 홍보계획(중기부, 제목만 공개)
- ③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문체부, 제목만 공개)
-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개최배경 】

제21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발표된 GDP 수정치와 5월 고용동향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완전한 회복의 기반이 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1.7%로
속보치에 비해 0.1%p 높아졌고
과거 2년간 연간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²⁾

기초자료들이 보강되면서
보다 정확한 경제상황을 포착한 결과
우리 경제의 반등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자신감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작년도 큰 폭 상승한 가계 순저축률³⁾의 경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이연된 소비지출로 연결된다면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간 재정과 수출이 버팀목이 되었다면
이제 내수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 실질GDP 성장률(%): ('19년, 잠정→확정치) 2.0→2.2<+0.2%p>
('20년 잠정치) △0.1→△0.9<+0.1%p> ('21.1/4분기, 속보→잠정치) 1.6→1.7<+0.1%p>

3) 가계 순저축률(%): ('19년) 6.9 ('20년) 11.9

완전한 회복의 완성인 일자리 회복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1.9만명 늘었습니다.⁴⁾

지난 3월 플러스(+) 전환된 이후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0만명 이상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저점 이후 4개월간 월평균 20만명 이상,

도합 82.8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직전인 '20.2월과 비교했을 때

100만명 이상 감소했던 취업자의 80% 이상 회복된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증가폭⁵⁾이 5개월 연속 전조하게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⁶⁾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도

함께 회복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인구가 13.6만명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취업자수는 13.8만명 증가하며

최근 3개월간 10만명 이상의 높은 증가세⁷⁾가 유지되고 있으며

고용률도 크게 상승⁸⁾했습니다.

4)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1)△27.3 (12)△62.8 ('21.1)△98.2 (2)△47.3 (3)31.4 (4)65.2 (5)61.9

5) 상용직 근로자(전년비, 만명): ('20.12)0.5 ('21.1)3.6 (2)8.2 (3)20.8 (4)31.1 (5)35.5

6) 주당 평균취업시간(전년비, 시간): ('21.1)△1.8 (2)△1.2 (3)1.0 (4)3.4 (5)0.6

7)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21.1)△31.4 (2)△14.2 (3)14.8 (4) 17.9 (5) 13.8

8) '21.5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청년)2.2 (30대)0.6 (40대)0.6 (50대)1.3 (60세이상)1.4

여성 취업자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⁹⁾
특히 최근 두 달 간의 증가폭이 35만명을 상회하는 등
여성 고용여건이 가파르게 개선되어
전체 취업자중 여성 비중은 위기 직전보다 높아졌으며,¹⁰⁾
경제활동참여율도 빠르게 상승¹¹⁾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만큼¹²⁾
여전히 정책적 관심·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첫째, 고용 회복을 동반한 경기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아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내수 회복이 빠르고 강한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2주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준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블 버블과 무착륙 비행 등을 포함한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 여성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1)△59.7 (2)△28.7 (3)17.9 (4) 37.4 (5) 35.6

남성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1)△38.5 (2)△18.6 (3)13.5 (4) 27.8 (5) 26.3

10) 여성 취업자 비중(%) : ('20.2)42.9 / ('21.1)42.1 (2)42.5 (3)42.7 (4)43.0 (5)43.2

11)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감(전년비, %p) : ('21.1)△1.8 (2)△1.1 (3)0.6 (4)1.4 (5)1.0

12) '20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전체)△21.8 / (여성)△13.7 (남성)△8.2 (청년)△18.3

【 청년 및 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

첫 번째 안건은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의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은

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회복세¹³⁾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호응이 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IT 직무에 4.3만명의 청년이 채용¹⁴⁾되었으며,

청년의 수요가 높은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에

청년 1만여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11.8만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5월말 현재 새일 여성인턴 6천4백명(연간목표대비 65%)을 연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2월)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취업을 지원중이며,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신규 인력양성(10,300명 목표)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이 빠른 시일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도록

추경 등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 완화, 창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21.2~5월 전월비 취업자(계절조정) 증가 +82.8만명중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와 연관성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증가는 +33.8만명으로 전체 일자리 증가의 약 40%

14) 연간 채용목표 11만명, 현재까지 기업제출 채용계획 중 승인규모는 8.3만명

【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준비 및 홍보계획 】

두 번째 안건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준비 및 홍보계획입니다.

소비 회복 및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6.24에서 7.11일까지 2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행세일은 2,870여개의 대·중소 업체¹⁵⁾가 참여하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상생형 행사로,
중앙·지방 연계 강화 및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제공을 통해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안전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입점·판촉 지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대면 외식 할인쿠폰¹⁶⁾ 및 온라인공연 할인쿠폰¹⁷⁾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송TV·대형포털 등 주요 언론·미디어 뿐만 아니라
SNS·유튜브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동행세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세일이 상반기 내수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아가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와
크리스마스마켓(12월)으로 이어지는
소비촉진 이어달리기의 성공적인 첫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 중소기업·소상공인 2,420여개 + 대기업·대중소유통업체 300(+α)개 + 전통시장 150개 등

16) 비대면 외식쿠폰(5.24일 개시):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

17) 온라인 공연쿠폰(5.18일 개시): 온라인공연 관람권 1매당 8,000원 할인

【 스마트관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스마트관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개인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일명 DNA를 활용한
스마트관광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인천 월미개항장 일대를
AI 맞춤형 여행정보, AR/VR 접목 시간여행 콘텐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도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지역 관광 거점을
대구와 전남을 포함하여 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관광객 이동·소비행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운영하여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AI기반 빅데이터 융합분석 알고리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의 본질은 ‘이동’에 있는 만큼,
스마트 관광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작년 12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금년 5월부터 지방공항으로 확대하여 1만6천여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하여
방역신뢰 국가와 협의를 거쳐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을 7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최근 회복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과 보강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자칫 코로나 위기가 우리 경제의
격차 확대나 항구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층별·부문별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경제상황 변화에 맞춘 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공급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표상 경기회복을 서민경제 윗목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추진, BIG3 육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